

여성 자치 연합(가칭)을 제안합니다!

수신 : 여성문제를 고민하고자 하는 분

발신 : 직접민주주의적 정치와 여성 자치 권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몇몇의 연세인

I. 들어가며

현재 총여학생회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학교에 국한된 일이 아니며 전국적으로 다른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운동의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정을 내리기 전에 총여학생회 선거에 후보가 배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치밀한 분석, 총여학생회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점들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더불어 대안적인 질서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총여학생회는 없어지질 않았습니니다. 3월에 선거를 할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총여학생회에 대한 결정은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 또는 어느 한 선본이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 이 사회에서 여성 문제를 조금이라도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의 목소리가 필요로 할 때입니다. 즉, 현재 총여학생회가 유효하나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문제 의식 속에서,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총여학생회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지느냐라고 생각합니다.

II. 총여학생회 구조에 대한 냉철한 사고가 있어야 합니다.

1. 일상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의 이분화

이번 선거 기간에 학생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각 선본들도 나름대로 학생회와 학우들이 괴리되는 문제에 대한 논의들을 했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제기에서부터 간부 자질의 문제까지, 그 수위는 상당히 다양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의 근거는 바로 학우들과 학생회가 괴리되어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학우들의 일상과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상과 '정치'가 분화되고 고착화되면서 학우들은 점점 더 학생회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총여학생회에게는 이러한 일상과 '정치'의 이분화 속에서 더욱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성문제란 근본적으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 순간, 옷을 입으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또는 취직을 고민하면서...그러나 투표 행위를 거치면서 이러한 일상의 문제는 걸러지고, 한 장의 투표로 모든 정치적 행위가 끝나게 되는, 부르조아적 정치판을 그대로 답습해버리는 그러한 학생회 선거는 이러한 일상적인 문제를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수많은 여학우들이 취직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이것은 취직과 결혼의 문제, 외모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복합된 문제임

정치에 따옴표를 씁니다. 즉, 정치라는 개념이 사실 상당히 넓은 데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국가와 정부 등의 '눈에 보이는' 정치라는 협소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니다. 또는 여성이기 때문에 가족과 생기는 문제도 많습니다. 오빠나 아버지에게 맞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과연 여학우들이 투표를 할 때 이렇게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문제(사실 너무나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인데...)에 기반을 두면서, 총여학생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학우들의 요구를 수행하는 것은 과연 총여학생회 간부들의 자질의 문제일까요?
대표나 중심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다른 학우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거나 대표에 의존적으로 만드는 구조라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총여학생회에 대한 조합주의적 규정

그래도 여전히 총여학생회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학생 휴게실은 어떻게 하며, 생리대 자판기 설치를 누가 하며, 그리고 학교에서 예산을 얻어내어 사업들을 펼치는 그러한 '복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복지'가 무엇일까요? 학우들의 편익을 생각하는 것들일까요? 단순히 편익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학생 휴게실은 여학우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여성들만의 공간이라는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남성화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이 모여 여성들만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복지의 문제는 단순히 학생회가 학우들에게 해주는 편익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학생회에 대한 조합주의적 규정을 내린다는 것은 학생회란 학우들의 일상적인 요구들을 해결하는 기구라는 규정입니다. 즉,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대사회적 투쟁을 한다고 하기보단 학우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34대 총학생회가 이러한 성격일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회 구조 자체가 일상과 정치를 분리시켜 놓는다고 했을 때, 복지의 문제는 단순히 복지의 문제일 뿐, '정치'라는 것과 여전히 괴리될 것입니다. 만약 여성문제가 일상에서 시작되는 문제라면, 그리고 여성문제란 항상 '복지'의 문제로 치부되는 전반적인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총여학생회를 조합주의적 규정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여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총여학생회의 역사는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년 동안 이룩해온 성과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에서 총여학생회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성과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총여학생회는 '여성들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러한 권력 구조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만약, 하향식의 학생회 권력구조가 억압적인 것이며 가부장적인 것이라고 했을 때, 여성들도 똑같이 그러한 권력구조 속에 편입되거나 똑같은 권력구조를 갖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과는 다른 방식의 권력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총여학생회는 하나의 상위체입니다. 그러나 상위체를 받쳐주는 '밑'이 없을 때에는 총여학생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 '밑'이 단대여학생회가 될 수도 있고 과여학생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형태의 '밑'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III. 여성자치연합(가칭)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현재 연세대학교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조직, 소모임들과 단대여학생회가 모여 '연합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여의 해체를 의미하거

나 총여의 자리를 메울 것이라는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연합은 누군가가 학우들 '위'에 조직을 만드는 것과는 달리, 바로 아래에서부터, 학우들 사이사이에서 시작되는 그러한 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변하는 정치가 아닌, 자발적인 주체성에 의한 내뿔음으로 발현되고 지켜내는 연대의 정치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자신만이 유일한 대표성을 지닌다는, 그만큼의 대중성도 지닌다는 전제가 아닌, 여성들의 동시다발적인, 그리고 반위계적인 모든 목소리에 대해 인정과 그에 대한 조직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각 조직의 특수성을 살리고 독자적인 생각과 행동을 보장하면서 학내에서, 또는 더 넓게 사회에서, 여성에 주어지는 문제들에 대해 논쟁하고 함께 힘을 모아 풀어낼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문제는 전사회에 걸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시각에서 풀어내야 할 것입니다. 학술적으로나 투쟁적 실천으로, 여성노동자의 문제에서부터 여대생의 취직문제까지, 다양한 수위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학교 내에는 다양한 모임들이 존재합니다. 성정치 위원회와 같이 성과 권력의 문제를 풀어내고자 하는 정치조직에서부터 여성학을 공부하는 소모임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단대여학생회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내용의 조직들이 서로 고립되지 않고 힘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대중 스스로가 행동하고 어느 상위 조직에 의존하지 않는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일 것입니다.

여성자치연합(가칭)은 하나의 조직이 아닌, 연대의 장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행동 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힘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여를 대체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3월에 총여학생회가 생기게 되더라도 연합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총여학생회에 대한 논의도 어느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닌, 연세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연합이 어떠한 상인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연합'이라는 개념이 여전히 하나의 균질적인 조직처럼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IV. 우리가 모여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1. "공부는 하고 싶은데 무엇으로 하지?" 커리를 만드는 어려움은 모두다 아는 바일 것입니다. 다른 모임들이 어떠한 이론적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2. 공식적인 인준 절차를 밟지 않은 모임은 공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준을 받았더라도 여전히 '여성학/성정치학'은 독자자거인 것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겨울 방학동안 총여학생회 내에 있는 작은 방을 여성학/성정치학을 활성화할수 있는 세미나/회의실로 사용합시다.
3. 현재 학내에는 규모가 어떻던 간에 자리 조직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학생회에 서는 자치 조직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학생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데에 있어서 힘을 합해봅시다.
4. 어느 모임이든 재생산의 문제가 항상 어려움이 됩니다, 특히 학내 연구 모임들이 쇠퇴해가고 학부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내년 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준비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일단은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담론을

유포시킨다는 면에서 효과적이고, 그래도 각 조직의 특성을 살린다는 것은 신입생에게 다양한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연합/연대체의 구체적인 모습은 그 구성원에서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모인 사람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모여서 場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다양한 모습들이 모여서 바로 연합/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

신유정(법학93), 임서진(국문 94)

이름이 없는 한 여성학 소모임

성정치 위원회 the other

대안체

총여학생회로 오시거나(학생회관 3층) 연락을 해주세요.

361-3645